

우백 딸들의 밝은 생애년을 연다

한국여성재단-팩스통신

137-88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1 국민은행서초동지점5층 TEL:595-6364 FAX:595-6397 womenfund@womenfund.or.kr

수 신	박영숙 이사장님
발 신 (담당자)	홍 보 팀 팀장 장 미 정 담당자 핸드폰: [REDACTED]
발 신 일	2005 년 11 월 22 일 (오 전 10 시 10 분)
제 목	세계일보 'CEO 책꽂이' 모음 책 발간을 위한 원고 검토 요청 건
요청사항	이사장님께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신 원고검토 요청입니다.
전송자료 리 스톱 및 내용요약	지난 봄, 세계일보에서 'CEO 책꽂이' 코너로 이사장님을 인터뷰하고, 기사화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CEO 책꽂이' 인터뷰 기사들을 모아 책을 발간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직 책 제목은 결정 못하고, 다음 주 쯤에 제본이 끝날 것 같다 합니다. 요청: 지난 번 이사장님 인터뷰 내용을 책을 발간하기 전, 다시 한번 이사장님께 검토를 요청합니다. 원고는 별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타(비고)	* 담당자: 이보연 세계일보 기자 (011-494-2740) * 검토일정: 되도록 빨리 검토해 주십사 하네요^^ * 용 매 수: 표지포함 5매

박영숙 이사장은 누구인가

박영숙 이사장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아니지만, 시민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다. 그는 한국여성재단,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하며 정부가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의 관심은 여성에서 시작해 환경으로, 사회 전체로 확장됐다.

1932년 평안남도 평양 태생으로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에 제학 중일 때부터 한국YWCA에서 일하며 여성운동에 뛰어들었다.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뛰던 그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 자료를 보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1990년 환경기자클럽이 선정해 받은 '제1회 올해의 환경인상'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쁨이다.

박 이사장은 얼마 전부터 미래포럼 이사장, 희망포럼 공동의장을 맡으며 여성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포럼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여성 지도력 향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경제계가 모여 만들었다. 희망포럼은 빈부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국가 발전 등을 추구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출범시킨 단체다.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일흔넷. 보통 사람들은 이 나이쯤 되면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평생을 일하며 보냈으니 노년기에는 쉬엄쉬엄 여유를 찾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50세만 넘어도 '현세대'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은 언제나 현역이다. 그에게 설 수 있는 매나 배

음을 멈출 수 있는 때는 없다. 그는 한국여성재단뿐 아니라 한국환경사회정책 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각계 인사들과 함께 희망포럼과 미래포럼에 참여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이사장은 한국 여성계, 기독교 운동계, 환경운동계의 원로 활동가다.

그는 6년간 정치권에 몸을 담기도 했다. 1987년 대선 이후 김대중 총재가 잠깐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총재권한 대행을 맡았다. 13대 국회에서 전국구에 등원했고, 평민당이 신민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개명했을 때 당무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 삶의 역정을 보면 한국 기독교운동, 환경운동, 운동권과 연계됐던 야당 운동사까지 한눈에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50년 이상 바람 거친 별판을 달렸으며, 이 땅의 시민운동가로서 이룰 수 있는 최대치를 이룬 그다.

한국여성재단은 여성단체의 재정을 도울 수 있는 기금·지원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지금이야 여성재단의 뜻에 동참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지만, 1999년 12월 재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어려움이 컸다.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은 많지만, 공익활동을 위해 기부하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가 실무자로 참여했다가 이사장을 맡게 된 것도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선뜻 이사장을 맡겠다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 공익 활동을 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 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다른 나라 정부와 달리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답답하다. 고액 기부에만 관심을 갖는 언론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개인과 기업들이 수익의 1% 혹은 0.1%를 기부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나누게끔 유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래도 그는 “나 죽을 때쯤이면 나눔문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지식하게 한 길을 걸었다

박영숙 이사장이 사회운동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대학 재학 시절 YWCA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최장수 총무라는 꼬리표를 달았을 만큼 YWCA에서 잔뼈가 굵었다.

“학교에서 학업으로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업보다는 농촌계몽 활동, 고아원 양로원 방문 등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재주는 없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피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가 시민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당황스럽게도 원동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제 고향 평양에서는 여성 차별이 별로 없었어요. 집안에서도 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절박한 마음으로 여성운동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쿨’하게 시작했죠.”

또 다른 힘은 집손함이다. 박 이사장은 “고지식함과 성실함이 꾸준히 한 길을 걷게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책임이 맡겨지거나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첫사랑 하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일이 확대되고, 어찌어찌 떠밀려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의 인생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은 결혼이었다. 37세에 열 살 연상의 민중신학자 고 안병무 박사와 만나면서 온실 속에서 자란 그가 찬바람을 맞게 됐다. 안 박사가 1974년 3·1 명동성당 구국선언에 연루돼 형무소에 수감되면서 박 이사장은 확실한 운동권이 된다. 구속자 가족의 일원이 되어 뒷바라지를 하고 각종 집회에 참여하면서 시야가 트였다.

“남편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도 갔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덕에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고 사명의식을 깨닫게 됐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생각하면서 넓은 의미의 시민운동을 하게 된 거죠. 정치활동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흔넷, 오늘도 책을 읽으며 배운다

박영숙 이사장에게 공부란 평생을 두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그는 62세 때 한국에 벌여놓은 일을 털고 영국 케임브리지대로 유학을 떠났다. 안 박사는 1993년 그가 정당 활동을 끝냈을 때 “환경 일은 알고 해야 한다”며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같습니다. 책 읽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왜 이런 즐거움을 진작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 하지 않고 책만 읽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전화를 하면서 읽은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늘 가까이 두는 것은 환경에 관한 책들이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부는것이. 3월 1일이후부터

1P606394박

봄》은 그가 성경처럼 대하는 책이다. 환경오염의 재앙을 최초로 폭로한 이 책은 환경운동의 고전으로 꼽힌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 내놓은 인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를 집요하게 되짚은 《히로시마》(나스 마사모토 외)도 흥미롭게 읽었다.

《녹색경제학》(이정전)은 손에서 놓지 않고 단숨에 읽어 내린 책이다.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이 교수님의 ‘녹색정책’ 강의를 특별 청강생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었을 정도예요.”

불꽃같이 살다간 사람들의 삶을 그린 책에도 관심이 많다. 여성 혁명이 로자 룩셈부르크, 평화 운동가 페트라 켈리의 삶은 그를 사로잡았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평범한 대학생 남매의 삶을 그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잉에 솔)도 기억에 남는다.

“책을 별로 읽지 않아 부끄럽다”더니 “책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신간에는 늘 관심을 갖는다”고 털어놓는다. 신문에서 소개하는 신간은 꼬박꼬박 챙겨 읽고 마음에 드는 기사는 오래 두었다가 책을 사는 데 활용한다. 출퇴근길 지하철, 여행길 기차는 독서에 마침맞은 곳이다.

영국 유학 이후 영어권 나라나 일본을 방문할 때면 서점부터 찾는다. 그렇게 사 모은 책이 1,000권이 넘는다.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대충 훑어본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읽는다.

2년 전 일본 서점에서 산 《오가타 사다코의 삶》은 아직까지 너리에 남아 있다. 오가타 사다코는 63세부터 10년간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으로 일했던 여성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보통 탁상행정만 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그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난민구호에 나섰다.

“책 표지에 ‘70세에 꽃을 피운 삶’이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게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훈장을 주려 했을 때 그가 제의를 거절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훈장은 생을 마칠 때나 받는 것이다’라고요. 그의 삶은 내게 깊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나도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는 “공부는 평생 해야 한다”며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강조한다. “나 스스로 열정하게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성과 이학 실력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동념을 깨고 선견지명을 가지라’는 말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여성의 말언니’ 박영숙 이사장이 후배들에게 던지는 말 한 마디다.

“여성이 성공하려면 남성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에만 파묻힐 것이 아니라 놀 줄도 알아야겠죠. 저는 어떻게 놀아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서 후회가 돼요.” -끝